

## 종합·해설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문지마 공동발의' 급증

## 4년 평균 584건...이틀에 한건꼴 내용조차 잘 몰라 도장 품앗이?

김영진 1208건·김성곤 1197건...휴일빼면 매일 1건 이상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 동안 평균 584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에 110~115일 가량 되는 휴일을 제외하면 이를에 한 건 폴로 법안을 공동 발의한 셈이다.

특히, 김영진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각기 1208건과 1197건을 기록, 지난 4년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건 이상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상천 의원의 공동발의 건수는 34건에 그쳐, 1년에 8건 정도의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발의 법안 건수가 많은 것은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절차적 편리함(?)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품앗이' 형식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다 보니,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반대하거나 아예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문지마' 공동 발의에 나선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에 보내는 의정보고서에 공동발의 법안 건수를 적시하며 입법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은 "법안 공동발의는 동료 의원과 소수 정당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법안 공동발의가 많다고 '문지마 입법'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회 만평

- 김종우



■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대 국회 공동발의 법안 건수

◇ 광주

의원	공동 발의 건수
김영진	1208건 (16대 87건)
김경철	936건 (17대 336건)
김동철	720건 (17대 404건)
박주선	538건 (16대 135건)
조일택	881건
김파운	830건
이웅섭	405건
정병완	273건

◇ 전남

의원	건수
김성곤	1197건 (17대 323건)
주승용	841건 (17대 388건)
유신호	730건 (17대 262건)
김호석	658건 (17대 220건)
이낙연	524건 (17대 237건)
최인기	500건 (17대 504건)
우윤근	369건 (17대 448건)
박상천	34건 (16대 15건)
김영록	690건
이웅석	625건
박지원	228건
김선동	400건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